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202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Green Conference Guide Book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녹색연회

[표어]

3R - Reduce Reuse Revival

줄이고(Reduce), 재사용하여(Reuse), 창조세계의 부흥(Revival)을 이끄는 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

Contents

● 인사말 _ 이철 감독회장	1
● 주제해설 _ 장석근 선교국 환경선교위원장	3
● 2024년 녹색연회 개요	8
● 2024년 녹색연회 포스터, 현수막	11
● 2024년 녹색연회 준비	12
●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14

설교예문 _ 14

창조보호를 위하여 주제에 따라 분류한 성경말씀 _ 20

공동기도문 _ 22

예배문 _ 23

교독문과 외침기도 _ 26

성만찬 _ 28

특송 악보 3곡 _ 34

● 감리회 녹색교회 명단	37
● 연회 환경선교위원회 조직	38

[인사말]

‘하나’되어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우리 감리교회! _ 이철 감독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600여 감리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중앙집권적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 질서의 조화가 제도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독회장으로부터 연회 감독, 지방회 감리사, 개체교회 담임목사에 이르기까지 목회적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동시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은 수로 구성된 의회는 교인들이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여 교회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상 속에서 모범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회는 ‘하나’라는 가치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감리교회를 전한 미국감리교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선교를 진행했지만, 한국에서는 ‘하나’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분열의 상황에서도 그 가치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는 계속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전통입니다.

오늘날 다시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극한 호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기후이상현상과 환경문제는 위기를 넘어 재난상황이 되었습니다. 산불과 지진,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있었던 재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제 기후위기 및 환경위기는 생존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종교계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사랑하고 돌보며 회복시키는 것은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한국 감리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수난현장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켜 왔고,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범을 보인 것이 우리 감리교회였습니다.
사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였습니다.

올해 지방회와 연회, 총회까지 하나님의 창조세계보전을 위한 의회로 ‘하나’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지방회 감리사님들, 연회감독님들 모두 특별한 지방회, 연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것인데, 올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깊이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위한 ‘녹색의회’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줄이고(Reduce), 재사용하여(Reuse), 창조세계의 부흥을(Revival) 이끄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한 ‘녹색연회 가이드북’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부 선교국을 중심으로 환경선교위원회와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가 함께 예배문, 찬송가, 주제해설, 설교문, 지구를 위한 실천활동 등 의회와 개체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하나’의 감리교회를 다시 확인하고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한국교회의 모범, 감리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바로 서는 감리교회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2024년 녹색연회를 준비하며

_ 장석근 목사 (선교국 환경선교위원장)

“2023년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지구 열대화(global heating)로 바뀐 해였다.”
(*The Guardian*, 2023.6.19)

지구 열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재 세계 인구의 30%가 사는 지역이 50년 이내에 사하라 사막처럼 “연평균 기온이 29℃ 이상”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Adam Tooze). 세계 곳곳에서 이상고온으로 폭염, 가뭄, 산불, 홍수, 지진, 질병이 발생하고 대륙빙하가 녹아내리고, 지하수 고갈로 물 부족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상 붕괴,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의 임계점은 이미 지났을 수 있다(*The Guardian* 2022.9.8)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난과 붕괴의 파국으로 임박한 이때, 우리는 “흠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창 2:7)을 생각하며 창조세계의 생기를 회복하고자(revival) 2024년을 ‘녹색연회’, ‘녹색총회’로 모이기를 제안합니다. 시류에 따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가득한 자본가들처럼 ‘환경’, ‘녹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국의 책임을 느껴 창조주 하나님께 참회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녹색(green)’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풀(green) 한 포기만 만들어 내는 영양분을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꿀을 찾는 곤충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곤충들이 앞에서 애벌레를 키울 때, 그곳에는 애벌레가 자라도록 하며 새끼를 키우는 작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들은 맹금류나 짐승들의 밥이 되고, 최상의 포식자들 역시 죽어서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가 식물 씨앗들의 거름이 됩니다.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이처럼 서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십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 1:31)

그 감탄을 ‘녹색연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찾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귀 기울이기를 배우는 것”(Jonathan Sacks)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shema), 우주의 노래, 곧 새들의 지저귀임, 나무들의 바스락거림, 파도가 솟구쳐 올라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비움의 생명(God’s kenotic life)인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로운 창조세계에 감탄하며 참여할 때, 그 질서에 우리 삶을 넣는(metanoia) 문화의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새와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에 따라 녹색연회의 표어 ‘3R’을 풀어 봅시다. 김득중 교수에 따르면,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고 할 때의 보라는 그냥 ‘보다(blepo)’가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다’ 또는 ‘눈여겨보다’라는 뜻의 ‘보라(emblepo)’라고 합니다. 이제 새들을 관찰(觀察)하며,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옷(衣), 밥(食), 집(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새에게 가장 으뜸은 ‘옷(깃털)’일 것입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도,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도 날개옷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은 가방이나 보따리를 들고 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맨몸으로 납니다. 날개옷 하나뿐입니다. 우리 옷장에 옷은 몇 벌입니까? 우리도 기후재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씩 하나씩 줄이며(Reduce) 살아야 합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절약 운동(Reduce campaign)을 많이 했습니다. 물, 전기, 나무, 옷은 물론 양말도 껌매어 신고, 교복은 당연히 형이나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 입고... 이젠 너무 풍족해서인지, 절약이란 말은 사라지고 가전제품의 절전형으로만 남았습니다. 한때 석유파동이 날 때는 가게 간판까지 모두 불을 켜지만, 지금은 밤새도록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말하는 이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흥청거림이 오늘 이 재난을 불러온 것임을 참회하면서, 새는 가끔 털을 갈지만, “**한 벌 옷으로 평생 사는 것**”을 새롭게 봅니다.

새 한 벌 옷도 마트에서 사지 않고, 자기 영양분으로 스스로 만듭니다. 멋진 문양을 넣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는 밥을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어 날지 못해서 알맞게 먹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쿠팡에 시키지도 못합니다. 가방도 없으니 스스로 나가서 한 번에 한 끼만 먹고 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둘 수 없었던 광야의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사는 새들을 보며, 우리의 소유물을 줄여(Reduce) 나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는 주변에 있는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새끼를 키워낼 만큼의 크기로 짓고, 자기 집을 스스로 짓습니다. 도구라고는 부리와 발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흉내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짓습니다. 까치집은 나뭇가지 2천 2백여 개로 집을 짓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재사용해서(Reuse) 바람이 조금 부는 날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다 키우고 난 까치집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은 집은 청설모나 파랑새가 그 집을 다시 쓰고(Reuse),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거름으로 쓰입니다.(Reuse)

우리가 쓰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옷의 재료인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그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나눠 써야 모두가 다시 삽니다.(Revival)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은 자연으로 잘 돌아가지 않거나, 거의 돌아가지 않고 쓰레기로 남습니다.

① **여럿이**(diversity) ② **함께**(community) ③ **스스로**(self, homeostasis), 그리고 ④ **돌고 도는**(circulatory)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몸을 맡기며 사는 새처럼, 2024년에는 ‘녹색연회’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의 삶을 넣으며, “아하! 와~”하는 탄성을 지르는 감탄의 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녹색연회 개요

Green Conference

01 취지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205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전 교단 차원의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녹색연회’를 개최함.

02 주제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녹색연회 (‘녹색’ 자리에는 연회명을 넣어 주세요.)

03 주제 성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04 주제 찬송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찬송가 79장)
-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찬송가 477장)
-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새찬송가 478장)

05 표어

3R - Reduce, Reuse, Revival

줄이고(Reduce), 재사용하여(Reuse), 창조세계의 부흥(Revival)을 이끄는 감리교회

06 실천방안

Reduce - 소비 위주의 삶을 회개합시다.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전등, 냉난방, 차량운행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소모임 또는 친교시 일회용품 지양)

잔반을 줄입니다.(소박한 공동식사 준비)

Reuse - 편리 위주의 삶을 회개합시다.

재생에너지와 재생제품 사용을 지향합니다.(친환경에너지, 재생용지 사용)

예배장식과 행사용품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Revival - 창조세계의 부흥을 위해 힘씁시다.

생명 :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감리교회,

평화 : 모든 피조물과 동행하는 감리교회,

정의 :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7 참고영상 _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1.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안내영상 7편
2.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기도문 3편



참고영상보기

08 녹색연회/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추진 과정

일 시	내 용
2021년 10월	제35회 총회에서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통과
2023년 6월	선교국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장정개정위원회 소위 상정
10월	선교국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장정개정위원회 소위 부결
10월	환경선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감독회의에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연회/총회' 개최안 건의 결정
11월	감독회의에서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연회/총회' 개최 결의
12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연회/총회' 개최안 통과
2024년 1월	2024년 녹색연회 준비를 위한 연회 환경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참여: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 서울연회 환경특별위원회, 서울남연회 환경보존개발위원회, 경기연회 환경선교위원회, 중앙연회 환경위원회, 동부연회 농어광산환경선교위원회, 충북연회 환경선교위원회, 남부연회 환경특별위원회, 충청연회 농어촌선교위원회, 삼남연회 농촌과환경선교위원회

2024년 녹색연회 포스터·현수막

Green Conference



녹색연회 포스터(A2)

※사용을 원하시는 연회/교회는 인쇄파일(pdf)을 다운로드 한 후, 자체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로고를 각 연회/교회로고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회 배너(60x180cm)

2024년 녹색연회 준비

1. 연회 준비 사항(Reduce)

연회 준비에 많은 자원이 소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 1) 종이 자료집 최소화: 전자문서 사용, 자료집 제작 시 재생 용지 권장
- 2)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 지참, 생수 PET병 및 종이컵 제공 지양
- 3) 유기농산물 식사: 식사는 유기농산물로 간소화
- 4) 녹색교통 이용: 연회 대표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또는 차량공유 이동

2. 회무시 권장 사항(Reuse)

재생가능한 상자이나 상품을 준비합니다. (명찰, 상장, 상품 등)

- 1)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 및 탄소중립(3R 프로젝트) 실천, 녹색교회로의 초대 결의
- 2) 녹색교회를 시상합니다.

① 환경 선교 및 생태목회에 앞장서는 교회

② 선교국 추천 연회별 녹색교회 명단 제공

- 3) 연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합니다.

- 4) 환경 동영상 상영하고,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 5) 연회중 헌금은 연회 환경선교기관 및 녹색교회, 감리회 환경선교기관을 위한 탄소헌금으로 드립니다.

※ 탄소헌금: 우리가 탄소를 발생시킴으로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려온 것을 회개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헌금

- 6)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연 5개 이상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연 10개 이상의 자립교회에서 비전교회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기로 결의합니다.

3. 연회장 이벤트 (Revival)

녹색 활동들을 소개하고 생태적인 문화를 확산하여 생기가 넘치는 연회를 준비합니다.

- 1) 연회장에 생태적 문화활동 전시 - 환경관련 도서, 그림, 사진 등
- 2) 연회장에 초록장터 및 캠페인 운영 - 지역 로컬푸드, 친환경 상품 등
- 3) 연회/총회원 문화활동 - 4행시 짓기(녹색교회, 녹색연회/총회 등)

※ 연회 캠페인 운영 예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이나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회에서 구매함으로 유기농업을 응원하며, 수입의 일부분을 녹색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품 또는 상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준비합니다.



친환경 상품



친환경 유기농 쌀



(상) 우리밀 성찬전병 신자용
(하) 우리밀 성찬전병 집례용

[설교예문]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_ 김민석 목사 (정동제일교회 영어예배 담당)

여호와 하나님 그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_ 본문: 창 2:15, 시 24:1-2

I. 서론

우리는 지금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남극 대륙의 얼음이 녹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바다의 섬들이 가라앉고 있으며, 전 지구적 가뭄이 발생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심치 않게 여름의 고온 현상과 아열대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녹색연회를 맞이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그리고 생태학적 행동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태학적 책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가? 있다면 어떤 구절들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의 성구들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적인 뜻을 살펴봄으로 성경적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II.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환경과 생태계에 청지기적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영성 관점, 생태정의 관점, 기독교적 청지기 관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¹⁾

1.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영성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둘째,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 사슬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감리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역시 “하나님이 시인하신 일들(God’s Approbation of His Works)”이라는 설교에서 “창조 시에 황금 사슬(a golden chain)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져서 가장 고결한 존재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한 치의 빈틈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 모든 존재의 긴밀한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 연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 사슬은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으로 중세 신학에서 강조된 존재의 대사슬(great chain of being) 개념으로 발전됩니다. 존재의 대사슬은 하나님을 정점으로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로 내려가는 존재의 계층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으며,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 버지니아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있는 윌리스 켄킨스(Willis Jenkins)은 자신의 책 『은혜의 생태학: 환경윤리와 기독교 신학(Ecologies of Grace: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ian Theology)』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생태영성, 생태정의, 청지기 의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2.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있다.”입니다.

이것은 생태정의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과 화해의 사역의 지평이 인류를 넘어서 온 피조세계를 아우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인간은 지구와 지구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오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가장 고통 받는 존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지구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 지구적 의사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생태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역시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창지기 의식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관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창 1:28) 즉,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지기로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Ⅲ. 다음으로 어떻게 환경과 생태계에 청지기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다른 피조물들과의 연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피조세계에 전함으로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함으로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낙원에서 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신생”이라는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 종류로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입니다.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의 불멸의 초상으로서 이해력, 정서의 집합체로서의 의지, 그리고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의와 참된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이 형상이 바로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자체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피조세계에 잘 드러내도록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이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이 손상되었고, 도덕적 형상이 손실되었습니다. 먼저 손상되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

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환경과 생태계에 청지기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매일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2.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생태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도 환경위기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지구를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키고 있는 자본과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구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선한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본과 경제가 지구를 손상시키는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일어나서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간만을 위한 예배, 인간을 지구의 왕으로 만들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인간이 이러한 존재의 대사를 가운데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청지기적 감당을 지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합니다.
-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합시다.
-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가족이 됩시다.

IV.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대 사명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이중 계명으로 집약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 12:30-31; 마 22:37-40; 눅 10:27 참조)

우리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보호를 위하여 주제에 따라 분류한 성경말씀

A Biblical Foundation for Creation Care :
Scripture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mes

출처 <https://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resources-for-creation-care>

1.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1-2 · 욥기 12:7-10; 33:4; 38-41장 · 시편 104편 · 이사야 40:26 · 마가복음 13:19

2.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9:8-17 · 시편 136편 · 요한복음 3:16

3. 창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

민수기 22:21-40

4. 창조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레위기 25:23-55 · 신명기 1-34장 · 시편 24편; 89:9-11; 95:4-5

5.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창조물/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물

역대상 16:32-33 · 시편 19:1-4; 65:12-13; 66:1-4; 96:11-13; 98:7-9; 148:3-4,7-13; 150:6

이사야 55:12-13 · 고린도전서 10:26 · 요한계시록 5:13

6.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창조와의 관계

창세기 4:10-11 · 열왕기상 4:29-34 · 전도서 3:18-22 · 로마서 1:20

7. 피조물을 돌보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서로 연결됨

출애굽기 23:10-11 · 레위기 19:9-10; 25:1-17

8.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간의 순종/불순종은 창조에 영향을 미침

신명기 11:13-17; 28:4,18 · 이사야 24:1-3; 44:1-5 · 호세아 4:1-3
미가 7:13 · 스가랴 8:12 · 갈라디아서 6:7-9

9. 창조의 일부이신 예수

요한복음 1:1-10; 17:24 · 골로새서 1:15-17 · 히브리서 1:2

10. 예수께서 황량한 곳, 산, 광야에서 기도하심

마가복음 1:35 · 누가복음 5:16; 6:12; 9:28; 22:31-41

11. 창조의 구원자이신 예수

마가복음 16:15 · 요한복음 12:47 · 로마서 8:18-23 · 에베소서 1:10 · 골로새서 1:19-20

12. 미래의 새로운 창조 비전

이사야 11:1-16 · 에스겔 17:22-24; 36:33-36 · 고린도후서 5:17-19
요한계시록 21:1-22:7

13. 인간의 대응: 모두를 위한 단순하고 공평한 삶

출애굽기 16장 · 신명기 2:7 · 느헤미야 9:20-21 · 잠언 6:6-8
에스겔 34:11-31 · 미가 4:1-4 · 마태복음 6:25-34 · 사도행전 2:44-45; 4:32-35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_ 공동기도문

하나님,

지금 이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_ 예배문

▶ 예배로의 부름 _ 1

인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녹색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함께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온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생명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 예배로의 부름 _ 2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
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_ 시 104:24, 30-31

▶ 예배로의 부름 _ 3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
들어라.” - 사 40:3-4

▶ 교독문 1 _ (시편 85편)

인도자: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 중: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인도자: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회 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 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인도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명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회 중: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인도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춥니다.

회 중: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인도자: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회 중: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입니다.

▶ 교독문 2 _ 새찬송가 교독문 27번, 30번 / 시편 85편

인도자: 하나님이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 중: 주의 많은 공훈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도자: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 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1-3)

인도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회 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인도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회 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시 85:7-9)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회 중: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시 67:1-2) 아멘.

▶ **교독문 3_ 새찬송가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인도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회 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상)

인도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회 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인도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시 24:1)

회 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롬 8:19)

인도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회 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도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회 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인도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롬 8:21-23)

회 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

▶ **파송과 결단_1**

인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기후위기시대,
생태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귀한 사역에 앞장 서십시오.

다같이: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파송과 결단_2**

인도자: 녹색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당신의 거룩한
역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같이: 우리는 생태적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보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예배자료 중 예배문의 일부는 '2022년 환경주일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_ 교독문과 외침기도

▶ 교독문

인도자: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회 중: 자연은 신비로 가득한 생명의 터전임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만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회 중: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회 중: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회 중: 자연은 영적인 안내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녹색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회 중: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힘과 인간의 신실한 노동을 통하여

회 중: 자연은 새롭게 창조 되어 감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무지와 탐욕, 풍요와 편리를 따라 살아옴으로

회 중: 자연의 신비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시켰음을 회개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환경파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회 중: 지구 생태계의 종말을 부른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이나이다.

인도자: 이제 우리는 창조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하여

다함께: 생명 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아멘.

▶ 외침기도 (결단의 기도)

인도자: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 주변의 생태환경을 돌보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 중: 노력하겠습니다.

인도자: 둘째,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정신을 물려받아 과소비와 환경 파괴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회 중: 실천하겠습니다.

인도자: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탄소저감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회 중: 동참하겠습니다.

인도자: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회 중: 줄여 나가겠습니다.

인도자: 우리 감리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회 중: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성만찬 / 한식문 목사(해운대교회)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 중: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회 중: 내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집례자: 하나님 날 구하소서.

회 중: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집례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회 중: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죄의 고백

집례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참 마음을 드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죄 사함 받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회 중: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집례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살라고 하신 생태계 전체를 향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물을 위해 배려하지 않았으며 새와 동물 등 피조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집례자: 과다한 화석 연료 사용과 합성세제에 의존한 삶은 우리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 삶에 흘러들어온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집례자: 전기 사용의 편리를 위해 이웃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외면했고, 소비가 주는 편리를 대가로 나무가 베어지고 강이 오염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회 중: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집례자: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각종 동물들을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그 탐욕의 결과로 동물들이 가혹한 희생을 당해야 했고, 과도한 육류 소비는 각종 질병과 구제역을 몰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죄사

집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에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세우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회 중: 아멘!

떡과 포도주의 봉헌

집례자: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소서.

회 중: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지어다!

집례자: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 넝쿨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소서.

회 중: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지어다!

집례자: 밀알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온 교회가 희생하여 세상과 하나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해져서 창조질서에 순응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기도

집례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참으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회 중: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으로 찬미 받으소서.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

집례자: 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회 중: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집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 중: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만찬 제정사

집례자: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만찬 제정사

집례자: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 중: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집례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기념의 말씀을 주께
 드리옵나니 당신 아드님의 희생을 기억하시어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 중: 아멘.

집례자: 오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기억하시어, 이 교회의 하나 됨을 드러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과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 알려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기쁜 잔치에 우리보다 먼저 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기다리나이다. 그 나라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 받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소서.

회 중: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집례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 가지로 온갖 영예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나이다.

회 중: 아멘.

주의 기도 | 다같이

평화의 인사

집례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회 중: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다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회 중: 아멘.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소서.

집례자: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찬례

집례자: (떡을 높이 들고) 주님의 몸, 당신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피, 당신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와 성찬 보좌를 맡은 이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한 후에 회중은 두 손을 모으고 침묵 속에 겸손히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예의 참여 | 다같이

성찬 후 기도

집례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살과 거룩하신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강건케 하시며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이 성찬에서 저희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회 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집례자: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회 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집례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회 중: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사 65). 아멘.

2024년 녹색연회 예배자료 _ 특송악보

선한 능력으로

본 웨버 시 & 지그미드 피츠 목사 곡

E B/D# C#m E/B

1. 그 선 한 힘 에 고 요 히 감 싸 여 - 그
2. 지 나 간 허 물 어 둠 의 날 들 이 - 무
3. 주 깨 서 밝 히 신 작 은 촛 불 이 - 어
4. 이 고 요 함 이 깊 이 번 처 갈 때 - 저

A E/G# F#m A/B E B/D#

놀 라 운 평 화 를 누 리 며 - 나 예 수 님 과 함 께 걸 어
갑 게 내 영 혼 치 놓 리 도 - 오 주 여 우 람 외 면 치 마
둥 을 헤 치 고 타 오 르 네 - 그 빛 에 우 리 모 두 하 나
가 습 벽 찬 노 래 들 리 네 - 다 시 하 가 되 게 이 끄

C#m E/B A A/B B7 E A/B

가 네 - 나 예 수 님 과 새 날 을 여 네 -
시 고 - 약 속 의 구 원 을 이 루 소 서 -
되 어 - 온 세 상 에 비 추 게 하 소 서 -
서 - 주 님 의 빛 이 나 는 이 서 날 -

E B/D# C#m E/B E/G#

그 선 한 능 력 우 름 감 싸 시 니 믿 음 으

A A/G# F#m A/B E B/D#

로 일 어 날 일 기 대 하 네 - 주 언 제 나 우 리 와 함 께

C#m E/B A A/B E

계 셔 - 하 루 또 하 루 가 늘 새 로 워

*주님의인격 / 주님의임재
**기도하여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류형선 작사작곡

mp *D* *G/D* *A/D* *D* *G* *D/F#* *Em7* *A*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5 *Bm* *F#m* *G* *D/F#* *Em* *C/E* *Asus4* *A*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9 *D* *Gm/DD* *F#7* *Bm* *G* *D/F#* *Em7* *A*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 그 뒤를 따르게
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13 *Bm* *F#m* *G* *D/F#* *Em* *G* *Asus4* *A6 ~ 7*

주의 사랑이 헛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17 *D* *A/C#* *Bm* *F#m7*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주의 교

21 *G* *D/F#* *Em9* *Em7/A*

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

25 *mp* 1. *Gadd9/D* 2. *Gadd9/D* *D*

리 - *리* -

자연속으로 오신 예수님 (채희동 작사, 이천진 작곡)

채희동

이천진

곳거리(조금 빠르게, 부드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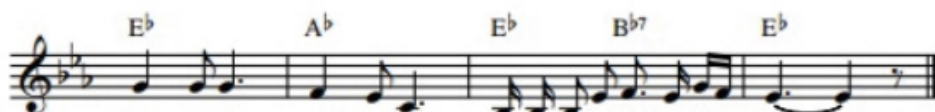
- | | | | |
|----------|------|--------|-------|
| 1. 하나님께서 | 한처음에 | 세상을만드실 | 때 - |
| 2. 예수님께서 | 사람으로 | 세상에오 - | 실 때 - |
| 3. 성령님께서 | 바람으로 | 이땅에불어올 | 때 - |



- | | | | |
|-----|------|----------|-----|
| 자연을 | 말씀으로 | 아름답게지으셨- | 네 - |
| 들꽃과 | 새가있는 | 자연속에오시었- | 네 - |
| 자연과 | 사람들을 | 한몸되게하시었- | 네 - |



- | | | | |
|-----|------|---------|-----|
| 강산과 | 만물가득 | 말씀이충만하- | 고 - |
| 주님의 | 길가에 | 백합화피어나- | 고 - |
| 생명을 | 살리시는 | 성령의바람불- | 고 - |



- | | | | |
|-----|-----|----------|-----|
| 자연은 | 말씀을 | 아름답게품고사- | 네 - |
| 자연은 | 주님을 | 고이고이모시었- | 네 - |
| 자연은 | 사랑을 | 생기있게살려주- | 네 - |

감리회 녹색교회 명단(34개)

※ 감리회 본부 선교국 추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선정

연회	지방	교회	목회자	연도
서울	중구용산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	2008
	서대문	가재울녹색교회	양재성 목사	2018
	동대문	전농교회	이광섭 목사	2019
	종로	평동교회	김종윤 목사	2020
	성북	월곡교회	최복규 목사	2022
	중구용산	평화를만드는교회	장성준 목사	2023
서울남	구로	평화의교회	박경양 목사	2009
	양천	인자교회	이동원 목사	2018
	강남동	나우리교회	염동철 목사	2022
	양천	세신교회	김종구 목사	2022
중부	일산동	백석교회	김연진 목사	2006
	고양	동녘교회	김경환 목사	2010
	강화북	일벗교회	서정훈 목사	2021
	일산동	산성교회	윤원영 목사	2022
경기	평택동	기쁜교회	류승빈 목사	2013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	2019
	평택동	예수향교회	박영훈 목사	2019
동부	홍천동	동면교회	박순웅 목사	2011
	속초북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	2012
남부	금산	받들교회	김명준 목사	2010
	대전중부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	2019
충청	온양동	송악교회	이종명 목사	2007
	서산	갈산교회	지석영 목사	2014
	예산	광시송림교회	이상진 목사	2017
	예산	자연드림교회	김신형 목사	2020
	예산	안골교회	김진희 목사	2023
삼남	진주	완대리교회	여승훈 목사	2015
	경북북	의성서문교회	이 혁 목사	2020
	진주	산들교회	노재화 목사	2020
	경북북	빛마을교회	이희진 목사	2021
	부산남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	2022
	한려	사남교회	이현우 목사	2022
호남	여수광양	갈릴리교회	김순현 목사	2018
	전남서	해남새롬교회	이호균 목사	2021

연회 환경선교위원회 조직

서울연회 환경특별위원회

신정숙(위원장) 정혜옥 김형권 한정애 김민영 신태하 현철호 이수자 김정은 김혜련 허진숙 강순자

서울남연회 환경보존개발위원회

이동성(위원장) 김창오 박동식 신동수 오종화 한태수 김윤배 김인수 김종로 나창호 양홍문 정차진

경기연회 환경선교위원회

강성률(위원장)

중앙연회 환경위원회

홍의중(위원장) 강종식 김영내 김영민 김재곤 봉승명 홍순일 황규상 권윤주 문종호 이인영 최용수

동부연회 농어촌광산환경선교위원회

한주희(위원장) 장석근 정현범 김종주 박상진 윤석호 주기중 서승원 하수광 박종문 한찬희 박용한
박세광 이동규 송원준 김영현 김성준 박순웅

충북연회 환경선교위원회

김일형(위원장) 차홍도 김은수 김재철 황효덕 황은경 김용민 박병록 박달영 박종근 이상호 채수인
김상만 공정예 박노황 안중기

남부연회 환경특별위원회

박봉열(위원장) 홍은철 신현구 김기수 홍현선

충청연회 농어촌선교위원회

장명석(위원장) 이준우 이충석 최만석 이성규 맹청재 허영 김신희 김연수 김용만 김진희 남광현
문기원 박형배 송인현 송인환 안규현 엄기문 오근영 우창식 유영석 유요열 이상진 이수훈 이정열
이희중 정준환 최승세 정해곤 안복규 성일룡 남동우

삼남연회 농촌과환경선교위원회

안중덕(위원장) 노재화 정만영 한석문 김성률 여승훈 이신일 한성훈 문영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202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Green Conference Guide Book

발행일 2024년 2월 1일

발행인 태동화(선교국 총무)

편집인 이승현(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편집위원 김신형 양재성 이은경 장석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40

디자인 및 제작 이야기|books